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0a, 히브리서 1 1:1-12:3: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1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히브리서 10:39는 자신의 생명이나 영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현해야 할 핵심 가치로 믿음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믿음이 행동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발전시켜 회중에게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장 개요는 히브리서 1 1장의 내용에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으로의 전환 지점에 관해 종종 다릅니다.

거기의 경계선은 다소 인위적일 것입니다. 적어도 장의 구분이 수 세기 후에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히브리서 11:1~40을 믿음에 대한 개별적인 본문 블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히브리서 12:1~3이 이어지는 내용으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히브리서 12:3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12:1~3이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일련의 사례에서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라고 부르는 예수의 모범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범에서 우리는 11장 전반에 걸쳐 흐르는 믿음의 본보기의 많은 요소가 결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1~3은 또한 11장의 내용에 대한 강력한 결론적 권고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11:1~12:3은 본질적으로 예시 목록이며, 다른 고대 예시 목록, 특히 이러한 예시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나 관행을 모방하거나 이러한 예시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악덕과 실수를 피하도록 청중을 설득하려는 맥락에서 작성된 예시 목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교를 위해 세네카의 책인 *혜택에 관하여*를 살펴보면, 3권과

5권에서 히브리서 11:1~12:3의 예시 목록과 유사한 두 개의 예시 목록을 찾을 수 있는데, 세네카는 그 목록을 구성하는 수단으로 반복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naphora는 저자나 화자가 같은 단어나 구절로 문장을 반복해서 시작하여 담론의 각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는 말장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는 믿음으로라는 구절이거나 그리스어로는 단일 단어인 *piste* 로 , 11:1에서 12:3까지 12번 이상 나타납니다. 세네카의 예시 목록에는 결론 근처에 요약 진술이 있는데,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언급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절 32절의 시작 부분에서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믿음의 예를 많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말한 다음, 그에 대해 가장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또한 세네카의 사례 목록에서 긍정적인 사례를 본받으라는 결론적인 권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증인의 구름이 많으니 우리도 경주를 합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소위 믿음의 장은 믿음의 사례의 칭찬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 아브라함 , 모세가 이 모든 세기 동안 기억되어 왔다는 사실은 청중에게 믿음의 길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 증거를 받는 길이며, 사람의 삶이 명예롭게 살았고 칭찬할 만한 기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명예와 이웃들 사이에서 칭찬받을 만한 기억의 기회를 파괴한 방식을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11:1에서 12:3까지에서 모범으로 제시된 사람들은 또한 믿음이 행동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순교자, 예수 등 몇몇은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 청중의 과거 경험과 선택과 날카롭게 공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저자는 청중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비난, 수치, 상실, 적대감에 직면하여 계속 전진하라는 권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의 예를

선택하고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 저자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미리 예시한 대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목록이며, 따라서 저자가 수신자의 모방을 위해 제시한 모델의 그림을 채웁니다. 본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에서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약속과 훈계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지식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잡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얻는 데 어떤 과정이 적절한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 과정이 시간적 지위, 고향, 명예, 부, 심지어 생명 자체의 상실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길이 명예를 가져다주든, 불명예를 가져다주든, 구원을 가져다주든, 고통을 가져다주든,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단지 그들이 머무는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도시와 고향, 흔들리지 않는 영역,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진 도시를 항상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환영받는 것을 해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이곳에서 산다. 저자는 믿음에 대한 찬사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를 통해 장로들은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포괄적인 정의를 시도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저자의 권고의 핵심인 신뢰나 믿음의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정의를 시도합니다. 시작점으로 그는 충실한 사람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방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믿음의 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사는 측면입니다.

정의의 전반부에서 저자는 그리스어 *hypostasis*를 사용합니다. 믿음 또는 *pistis* , 신뢰는 바라는 것들의 *hypostasis*입니다. 철학적 언어에서 *hypostasis*라는 단어는 무언가의 실체 또는 근본적인 본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은 이런 의미의 일부를 반영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과 본질의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법률 또는 사업 언어에서, *hypostasis*는 수많은 파피루스와 고전적 텍스트에서 증명된 것처럼 소유권 증서나 보증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린다면,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또한 10장 34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집단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신자들이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hypostasis*의 두 가지 의미는 정의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감이나 믿음이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낳는다는 정신적 확신과 같은 믿음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정의는 신뢰 또는 믿음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그리고 따라서 믿음을 갖거나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제공할 것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선의 근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광야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불신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붙잡도록 듣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elencho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elenchos* 입니다.

이 단어는 반박할 수 없거나 필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대에 의해 뒤집힐 수 없는 자료이며 법정이나 의회에서 자신의 사건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나 신뢰로 번역하는 단어인 *pistis*는 법정에서

증거의 의미도 가졌기 때문에 정의의 후반부는 이 논증의 맥락에서도 자연스러운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증거란 배심원단의 아무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평결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확립이거나, 평의회 회의장의 청중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미리 계획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확립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신뢰와 이러한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 사이에 일종의 상호 관계를 발견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후자는 결코 실현되지 않지만, 신뢰에 의해 이러한 아직 보이지 않는 재화의 현실이 현재와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11장 1절의 믿음과 6장 19, 20절에서 저자가 논의한 소망 사이에도 특정한 관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영원한 유산에 대한 권리증서입니다. 6장 19-20절에서 소망은 사람을 영원한 항구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과 소망은 모두 듣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잡도록 인도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분이거나, 말하자면 보증금이며, 지금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즉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다면 보장된 것이 될 것입니다. 신뢰 또는 믿음은 무언가의 시작이며, 완전한 소유와 향유가 끝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저자는 믿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회포스타시스의 첫 번째 분할금을 굳게 붙잡는다면, 인용하자면 그리스도의 동반자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된 상품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할부는 끝까지 견고합니다. 저자가 3:14에서 의미한 바는 이제 이 신뢰의 정의에 의해 강화되고 다소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인다면, 우리는 소유권 증서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본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직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영속적인 영역에 정박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두 번째

구절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빠르게 이어가며 믿음이 증명, *marturia*를 얻는 방법이라고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믿음으로 장로들은 증명이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레드릭 돈커가 후원자들의 비문을 연구한 결과, 마르투리아 와 마르투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로마 당국이 지역 의회에서 영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영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당국의 확언을 나타냅니다. 동사 마르투리아 의 형태는 여기 11장 2, 4, 6절과 39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반복은 저자가 믿음 안에서의 인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수신인들에 대한 유사한 인정, 그들의 가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영원한 명예의 부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7절까지 저자는 홍수 이전의 문제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하여 드러난 믿음의 몇 가지 예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대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하여 보이는 것이 감각적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에서 생겨났다고 씁니다.

히브리서 11:3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는 것과,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우월성과 궁극성을 확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존하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역보다 덜 가치 있고 지속적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그것이 생겨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일종의 증거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는 결과가 존재한다면 원인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신자들이 가시적 현실 너머의 그 지속적이고 지속적이며 궁극적인 영역에 희망을 두고 그 안에서 집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저자의 지속적인 시도의 일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이 장 전체에서 많은 신앙의 본보기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행동의 방향을 정할 때 보이지 않는 현실과 미래의 현실을 고려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 3, 7, 10, 15, 20, 22, 26, 27절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35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보이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선택을 합니다.

4절에서 저자는 아벨의 예를 믿음의 예로 든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큰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과 함께 증거하셨으며, 이를 통해 그는 죽었음에도 여전히 말한다. 두 번째 성전 시대에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카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이유에 대한 상당한 추측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어 창세기의 칠십인역 번역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칠십인역 번역자는 카인의 제물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삽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카인이 그것을 올바르게 바쳤지만 올바르게 나누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읽습니다. 아벨과 카인의 도덕적 자질과 각자의 제물의 수용 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측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서 그는 창세기의 첫 장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의역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의 희생이 카인의 희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신뢰나 믿음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또한 아벨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현실, 즉 사후의 삶을 즐기는 데 이르게 합니다. 창세기 자체는 아벨을 정의롭다거나 의롭다고 부르지 않지만, 그리스어 단어 *dikaios*는 아벨에 대한 일반적인 별명이 되었고, 제2 성전 시대와 그 문학을 통해 그의 생활 방식을 자주 묘사했습니다. 저자는 아벨에게 정의나 의로움을 부여하는 이러한 전통을 공유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카인에게 살해된 후에도 아벨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나올 것이라는 속담의 일종의 성경적

버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죽음을 넘어 살고 있으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무덤 너머에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본보기가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살 것입니다. 아벨의 본보기와 곧 뒤따를 에녹의 본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데 이른다. 이 주제는 이 찬사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저자는 에녹의 본보기로 시간을 옮겨가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번역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증명되었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우리는 에녹이라는 애매한 인물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 전 메투셀라가 태어난 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칠십인역 번역은 창세기의 원래 구성과 그 이야기의 히브리어 해석의 저자 사이의 해석 과정에 개입합니다. 칠십인역 번역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번역하고, 따라서 칠십인역 번역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후,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아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에녹의 이야기에 믿음의 질을 삽입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음 너머의 삶과 이 눈에 보이는 영역 너머의 삶을 즐기게 하는 질이며, 에녹이 누렸다고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칠십인역의 전통을 따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형태는 권고가 계속됨에 따라 계속해서 올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12:28에서 다시 마주칠 것이고, 그다음 13절 16절과 21절에서 마주칠 것입니다. 저자는 신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보상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인의 의견과 승인에서 분리하여 그룹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승인에 더욱 온전히 집중시켜 그룹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 그룹의 가치를 제정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그의 전략에 잘 맞습니다. 116에서 저자는 에녹의 모범에 대한 그의 초상화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삽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밝힙니다. 저자는 여기서 신뢰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후원자-고객 맥락을 매우 잘 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가치가 있고, 허락되면 그 은혜가 전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7절에서 저자는 홍수 전 마지막 예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건하게 반응하여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신뢰와 함께 오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9장, 특히 칠십인역 버전에서 의롭고, 디카이오스 이며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에게 기분 좋게 하다’를 사용하여, *erestese* . 저자는 물론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와 당시 완전히 건조 도킹된 방주를 건설한 노아의 경건한 순종을 언급합니다. 노아의 감각과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현실에 비추어 자신의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은 안전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그의 회중이 그들의 상황을 노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제거할 요소들의 대격변적이고 종말론적인 흔들림의 날입니다 .

그러므로 그들은 노아처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타당한지 분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그들은 이웃들이 현재에 어리석다고 여길 만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심판 날에 무엇이 가장 현명한 행동 방향이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 찬사에서 처음으로 상당히 발전된 예이며, 따라서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특히, 첫째, 이 세상의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믿음의 사람의 자세와 둘째, 신뢰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으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나갔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마치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거하며, 같은 약속의 동료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기초가 있는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도성의 장인과 건축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중심인 자손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지 않는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4장에서 집중할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국을 뒤로 한 의지에 초점을 맞춘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르기 위해 고국에 편안하게 뿌리를 내린 것을 기꺼이 버리고, 지상의 어느 지역에서든 외국인과 이방인의 지위를 받아들인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지위 상실과

불명예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고대 세계에서 상당히 적은 보호를 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한다.

관객은 족장이 세상의 눈에 낮은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 즉각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떤 의미에서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물리적으로 고국을 떠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고향에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적절한 모범으로 여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의 눈에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에서 더 큰 영예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전통적으로 약속된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천막에서 살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방인이자 낯선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이 그에게는 의미였습니다.

저자는 가나안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전히 더 나은 고향을 찾고 있었으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 기초가 있는 도시, 그 건축가이자 건설자가 하나님이신 도시를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참된 대상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하늘의 안식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들은 실제로 같은 약속의 동료 상속자이며, 저자는 1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저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전개하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난 후손을 낳는 더 친숙한 측면에 도달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나이를 훨씬 넘어선 후에도 그는 약속하신 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을 소개하는데, 이는 바울 독자들에게 더 친숙할 것입니다. 즉, 사라의 불임과 자신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낳는다는 관용어적 능력은 일반적으로 임신에 대한 남성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로 고려됩니다.

저자는 또한 10장 23절에서 최근에 한 말을 회상하는데, 그 구절에서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그들의 소망의 고백을 붙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저자는 무수한 자손의 형태로 된 생명이 죽은 사람에게서 왔다고 확언합니다. 이 구절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온 것으로 번역하는 경향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죽거나 생명이 없게 된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리스어의 냉엄한 언어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기관의 죽음에서 세대가 출현하는 것은 아벨과 에녹이 죽음을 초월한 이전의 사례와 유사하며, 이 찬사가 계속되면서 19절과 35절에서 더욱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듣는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넘어, 심지어 이 삶 자체를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바라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저자의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혜택을 주시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그의 찬사에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예에 대한 해설을 끼어넣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배에 탄 사람들, 즉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계속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설로서, 이 구절들은 저자가 그의 예 목록에

대한 목표를 분별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가 청중이 농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뢰하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재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들을 보고 인사하며 자신들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고 거주하는 외국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이 나간 땅을 염두에 두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고향, 즉 천상의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이 족장들이 입술과 삶으로 한 고백은 저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곧 그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것이다. 이 고백은 창세기 23장 4절과 창세기 24장 37절을 합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실제로 족장들의 실제 연설로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나는 너희 가운데 외국인이며 거주하는 외국인이다”라고 읽었고, 두 번째 구절에서 “나는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읽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땅이 하늘나라와 대조되는 땅이라고 이해하는데, 이는 저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신뢰 속에 출발했을 때 뒤에 남겨둔 고국과 시민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느님이 제공하실 고향을 찾는 것을 멈추고 고국에서 자리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이라는 낮은 지위를 고집하며 죽을 때까지 이 지위를 받아들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 주해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아브라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슷한 강조점을 보여줍니다. 두 저자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 혼란과 이주를 겪은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에게 즉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신의 약속을 향해 여행하는 기독교 집단에서 벗어나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가져온 낮은 지위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에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 짧은 물질적 우주에서 그들의 고향 땅에서 벗어나 신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고향으로의 여정을 견뎌내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한 것처럼 남은 수신인들의 헌신을 뒷받침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더 나은 나라인 이유는 무엇인가?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 방침이 유리한지에 대한 현명한 평가로 인해, 그들은 저자가 수신자들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재화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지상의 나라와 지상의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재화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가 수신자들이 계속 본받기를 바라는 족장들의 지혜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식별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긴밀히 동일시할 만한 사람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의 앞선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구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그의 자매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뛰어난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교제를 통해 그들의 명예에 대한 신성한 증거를 받습니다. 이 교제는 결국 신뢰하는 사람이 신성하게 지정된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 고향과 고향 도시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굴욕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족장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권, 즉 참정권과 불명예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신뢰하는 데 너무 확고하여, 더 나은 천상의 고향을 찾는 탐구를 계속하기 위해 이곳에서 평생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본받고 믿지 않는 사회에서 호의와 지위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공할 배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선호하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에서 집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저자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준 믿음에 대한 이 찬사의 나머지 공간은 믿음이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확신과 둘째로 죽음 너머에서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이삭을 바쳤고 약속을 받은 자는 그의 외아들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이삭에게서 네 후손이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설교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결심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에피소드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본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으로서의 이 에피소드의 본질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강조되며,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응한 것도 강조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을 제2성전 시대 문학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최고 표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숙고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통해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꺼이 희생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이 전해지는 것과 믿음이나 신뢰를 보이는 사람의 미래 지향적인 지향을 포함하는 세 가지 매우 간단한 예가 뒤따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주었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자를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서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나감을 생각하며 그의 뼈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간략한 언급은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의 그리스어 또는 칠십인역 번역에 익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곳입니다.

창세기 47:31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침대 머리맡에 절을 했다고 읽습니다. 이것의 칠십인역 번역은 야곱이 지팡이 머리맡에 절을 하거나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글자 위에 다른 모음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에게는 매우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방인인 야곱이 그의 지팡이, 순례자 지팡이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이미지는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순례자이자 이방인으로서의 희망을 그의 삶의 끝까지 재확인하는 데 끈기 있게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저자가 이 찬사를 형성하면서 얼마나 선택적이고 의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요셉이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즉 유혹에 대한 저항, 고난 속에서의 인내, 형제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요셉이 임종할 때의 언급만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행동으로 나타난 신앙의 초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계속 방향을 잡았고, 이집트 탈출은 그 성취를 향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미래의 행동을 너무나 확신하여 그의 뼈가 마지막으로 안식할 곳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은 저자가 믿음의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여전히 단지 체류하는 곳에 살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지속적인 집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세이며, 자신이 있는 곳을 자신의 집, 마침내 정착하고 쉬일 장소로 보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이집트에서도 요셉은 더 나은 천상의 고향을 찾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찬사에서 자세히 주목한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난 후에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재능이 있음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고 죄의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와 같이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수신자의 상황에 맞게 모세의 믿음에 대한 묘사를 형성합니다. 율법을 주고 언약을 중재하는 자로서 모세의 명성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자가 모세의 신앙을 묘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세상의 눈에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신의 백성과 연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연합이 세상적 지위와 발전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상실했음에도 말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행동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필로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입양된 후 이집트 왕족의 일원이 되었고, 이집트 왕좌의 상속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모세는 예외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가장이자 후원자이자 후원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왕국의 통치자라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의 보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운명을 포기했습니다. 그 운명은 믿지 않는 지배 문화의 일원이라는 덕분이었고, 그의 지상 유산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새로운 영적 유산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족의 명예를 버리고 노예가 되어 가장 낮은 지위의 민족이 되었고, 모욕과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모세가 직면한 선택은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것인지는 설교자가 10장 33절과 34절에서 설명한 대로 설교자의 청중이 과거에 내려야 했던 결정과 공명합니다. 모세가 내린 선택은 13장 3절에서 공동체의 현재 상황에서도 본보기로 제시될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과 마치 그들과 함께 몸으로 있는 것처럼 연대를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모범은 이 특정 공동체에 대한 저자의 권고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궁정의 기쁨은 가치가 없음을 시사하는 두 가지 용어로 제한됩니다. 그것은 영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므로 신자들의 유산은 영속적이며 따라서 이집트의 보물 창고를 즐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죄로 규정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죄는 다시 한번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신자들의 사회에서 자리나 쾌락을 찾으려는 유혹 때문에 거부되거나 중단될 때 일어나는 일로서 죄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우정의 가치를 세상의 우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적들이 명예를 정의하고 명예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학대를 포기할 때 발생합니다.

모세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보물과 비난의 가치를 각각 평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보상에 눈을 고정한 채 후자, 즉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의 비난이 더 큰 보물임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적 실체를 영원한 실체에 비추어 평가하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세상 법정에서 견뎌낸 비난과 불명예조차도 하나님 법정에서 영예의 길로 바뀌어 세상적 보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수신자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비난을 감당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범은 청중의 목회적 필요에 맞게 각색되어 그들 자신의 믿음을 제정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색은 저자가 모세를 문학적 허세로 묘사하여 수신자들이 죄의 일시적인 쾌락보다 그리스도의 비난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함을 이집트를 떠나면서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저자가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한 후 미디안으로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탈출 당시 히브리인들의 수장으로써 떠난 것일까요? 저자는 아마도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은 실제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이는 탈출기 2장 14절과 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그 시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썼는데, 모세의 살인 혐의를 벗기고 그의 도피 동기가 비겁하다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오히려 파라오가 모세를 두려워했고 모세를 암살하려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떠남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의 행동이 되었고, 도피는 그가 지혜와 인내심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르타파누스 도 파라오의 질투와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사실, 모세가 죽이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암살자이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이집트를 처음 떠난 것과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연관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주요 요점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수신자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미디안으로의 도피였는지 아니면 탈출 자체였는지 결정하려는 시도는 저자 자신의 강조점에 부차적이며, 이 시점에서 명확성이 부족한 것은 정확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내면적 눈의 초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신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보는 자로서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신자들은 모세의 모범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의 진로를 확고히 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모범을 계속 고려하고 그의 신뢰의 모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과 정복에서 보여준 신에 대한 신뢰로 직접 넘어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여리고에 대한 다가올 심판에 비추어 지혜롭게 행동한 외국인 라합의 주목할 만한 모범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기를 지켰습니다. 파괴자가 그들의 만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를 건넜고, 이집트인들이 시도했을 때 그들은 삼켜졌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은 일곱 날 동안 포위된 후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 맞이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파라오의 양보로 지상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해방을 미리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아직 행하지 않으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지금 축하하는 믿음의 미래지향적 지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 13, 21~23절을 참조한 피를 뿌리는 것은 아직 이집트를 통과하여 파라오를 철저히 채찍질하여 파라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만아들인 이스라엘을 풀어줄 때까지 죽음의 천사인 파괴자로부터 만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은 둘 다 신뢰 또는 믿음으로 행해지는데,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올 성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저자는 하느님의 미래가 그들을 위해 행동하고 하느님의 미래가 불경건한 자들을 대적하여 행동할 때 그들의 행로가 지혜로웠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21~31에 기록된 홍해를 실제로 건널 때 우리는 또 다른 극단적인 믿음의 행위를 발견합니다. 두 개의 물벽 사이를 걷는 것은 물론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최고의 신뢰 행위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동료들을 선택한 지혜가 가장 예리하게 드러난 곳은 홍해일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의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홍해는 히브리서 11:7에서 홍수와 함께 종말론적 심판의 원형이 됩니다.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너거나 홍해에 휩싸이는 것은 신실한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을 동시에 의미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저자는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정복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여리고에서 보여준 신뢰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시고 도시의 요새 벽이 가장 색다른 방법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7일 동안 도시를 행진했는데, 이는 불신자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리고 성벽 안에서 라합은 자신의 생존이 지상 도시의 요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협력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정탐꾼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에 침투했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를 몇 걸음 뒤로 돌려 여호수아 2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 그녀는 고향 도시에 대한 반역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환대와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도시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연합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만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의 예는 모든 지상 도시가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강화합니다. 여리고처럼 그들은 돌 하나도 던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속의 도시에는 궁극적인 토대가 없으며, 가장 현명한 행동 방향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닥칠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